

# 4월 동행축제 매출 5441억...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성과

중기부, 동행축제 매출 집계  
온라인 매출 3695억 기록  
오프라인 매출 1746억 기록  
3.6만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참여  
200개 유통채널 할인전 동참  
년 2회 소비축제 정례화 추진

한 달간 진행한 '4월 동행축제' 매출이 총 5441억원을 달성하며 내수 활성화에 특독히 기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상반기 4월 동행축제와 하반기 범부처 통합 소비 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연 2회 소비축제를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열린 4월 동행축제 매출은 온라인 3695억원, 오프라인 174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행축제 평균 매출액 5263억원과 비교해 3.4% (178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600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석하고 200개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할인 기획전이 펼쳐졌다. 아울러



(왼쪽부터)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민석 총리가 동행축제 행사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동행축제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한시 상향 정책 등에 힘입어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전년 평균 대비 48% 증가한 5118억원 어치를 기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동행축제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축제와 동행축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보유한 대형 유통기업과 협력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기존 TV홈쇼핑, 온라인 기획전 등 온라인 판매전 중심의 행사에서 대

형마트, 복합쇼핑몰, 편의점, 한살림생협 등 다양한 신규 유통채널이 대거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매출 성과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기획행사와 지역축제를 연계한 총 71개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들 행사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다.

대표 사례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자체 기획한 '대구 수제버거 페스티벌'은 지역 골목상권의 청년 외식창업자 10개 업체를 발굴해 로컬 브랜드 제품을 홍보·판매했다. 이틀간의 행사기간 기업당 평균 1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연간 일평균 150만원 매출 대비 3.3배 늘었다. 페스티벌 기간 방문객도 1만 2000명에 달해 개최 두 번째 만에 지역의 대표 먹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부평 블랙데이' 행사와 인천항 크루즈 입항 관광객 대상 투어버스를 연계해 5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상권 소비를 유도했다. 이를 계기로 하반기에는 인천관광공사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소비관광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유통 채널간 협력도 눈에 띈다.

한국주방유통협회 및 의류환경협회의체와 협력해 의류·주방용품 재고 할인전도 개최했으며 기업의 재고부담을 덜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업종과 품목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동행축제를 대표하는 '동행 300' 제품

역시 누리집 직접 판매 지원과 할인쿠폰 제공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촉전을 통해 총 1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정부도 동행축제를 대거 지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과 중기부 차관도 총 11차례 동행축제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소비촉진 메시지를 전달하며 소비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한성숙 장관은 "동행축회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올 하반기에는 범정부 소비촉진 역량을 결집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내수 활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상권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소비와 상권 활력을 높이는 '모두의 소비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범부처 통합 개막식과 대규모 할인전, 지역 여행·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중기부, 재경부 등 10개 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맛집 알려줘” 말하자 척척... AI비서 품은 세단

### YG의 CAR TALK

#### 현대차 '더 뉴 그랜저'

플레오스 커넥트 탑재 SDV 진화  
글레오 AI, 날씨·이슈 검색 지원  
17인치 화면으로 조작 편의 강화  
전자제어 서스펜션 승차감 개선

“00까지 가는데 맛집 있으면 알려줘”

운전석에 앉아 주행을 시작하면서 도착지 인근 맛집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자 곧바로 음식점의 컨셉과 메인 음식을 알려준다. 또 이동 중 신호대기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정보를 검색하는 불편함도 줄어들었다. 현대차가 새롭게 출시한 '더 뉴 그랜저'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를 탑재하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진화하는 자동차(SDV) 시대로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플레오스 커넥트에는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차세대 생성형 AI 에이전트



현대차 더 뉴 그랜저 전측면 모습. /양성운 기자

인 '글레오 AI', 외부 업체(3rd Party)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빠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쿼리 스텝드래곤 콰드 4세대 칩이 탑재됐다. SDV로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하드웨어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 28일 신형 그랜저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와인딩 구간 등을 주행하며 새롭게 적용된 기술을 경험했다.

이전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글레오 AI다. 운전자의 명령에 따라 오늘 날씨와 실시간 이슈 등을 빠르게 검색해 알려준다. 단순 검색을 넘어 운전자 맞춤형 비서로 진화했다.

실내 공간은 미래지향적인 라운지를 연상케 한다. 1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있고, 기존의 계기판 대신 도입된 소형 디스플레이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필수 정보만 띄워 시선 분산을 최소화했다.

또 17인치 디스플레이는 좌우 1:2 비율로 나눠 왼쪽에는 차의 상태 및 주행 정보를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터치 반응이 빠르고 차의 설정 항목을 기능별로 배치해 시선 분산 없이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와 음악 앱의 위치를 바꾸고 이동하는 과정은 스마트폰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적용해 도심과 고속 구간에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 전방 카메라로 전방의 노면의 상태를 미리 인식하고 서스펜션의 감쇠력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과속 방지턱이나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번에 출시한 더 뉴 그랜저는 화려한 외관의 변화와 다양한 기술을 내밀하지 않고 핵심 기술을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현대차가 고민하고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뉴 그랜저의 시작 가격은 가솔린 2.5 모델 기준 4185만원부터다. /양성운 기자 ysw@

## 포스코DX, 산업현장 로봇 자율작업 맞손

### NC AI와 로봇용 AI 모델 개발

포스코DX가 NC AI와 손잡고 산업현장 로봇의 자율작업 구현에 나선다. 양사는 포스코DX의 로봇 제어·시뮬레이션 기술과 NC AI의 인공지능(AI) 모델을 결합해 피지컬 AI 기반 로봇 지능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고위험·고강도 작업의 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코DX와 NC AI는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 NC AI 본사에서 'AI 기반 로봇 자율작업 체계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DX는 산업현장에 적용될 로봇의 모션 플래닝과 제어 시뮬레이션 검증에 담당한다. 또한 로봇이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NC AI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 적용될 AI 모델 개발을 맡는다. 산업현장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로봇이 다양한 작업 환경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중진공, K-방산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 LIG D&A 협력사와 MOU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LIG 디펜스 엔에어로스페이스(LIG D&A)와 손잡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중진공은 지난 29일 강석진 이사장, 신익현 LIG D&A 대표, 그리고 LIG D&A 핵심 협력사인 퍼스텍, 피코니아, 탈로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방산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 등 중동 지역 분쟁 상황에서 한국형 방공체계 '천궁-II'가 주목받으며 K-방산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련했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체계종합기술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갖춘 방산기술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체계종합기술은 전자·미사일·레이더·항공전자 등 다양한 부품과 기술을 하나의 무기체계로 통합·개발하는 기술을 뜻한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 제로 음식물처리기 선택

고온 분쇄·탈취 성능 대폭 강화

코웨이가 강력한 고온 분쇄 성능과 탈취력을 두루 갖춘 신제품 '제로 음식물 처리기 분쇄형' (사진) 2종을 정식 출시했다.

31일 코웨이에 따르면 제로 음식물처리기 분쇄형은 150°C 고출력 히팅 시스템과 코웨이만의 독자 기술을 담은 '4중 블레이드'를 적용해 음식물을 빠르고 강력하게 건조·분쇄한다. 특히 소량의 음식물은 쾌속 모드 작동 시간 1시간 만에 빠르게 분쇄할 수 있다. 2L 모델은 음식물 부피를 최대 96.5%, 3L 모델은 최대 96.7% 감소시킨다.

탈취 성능도 강화했다. 대용량 활성탄 필터 시스템을 적용해 황화수소·암모니아 등 유해가스 8종을 99% 제거하고,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위생 관리 편의성도 높였다. 공기가 통과하는 내부 유로에는 UV-C 살균 기능을 적용해 대장균·살모넬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99.9% 제거하고, 건조통 내부는 고온 세척 기능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유류기가 배출되는 유로도 분리세척이 가능해 제품 내부 위생 관리까지 강화했다. 이 제품은 자가관리 전용으로, 교체 주기에 맞춰 탈취 필터를 비롯한 서비스 키트를 정기 배송해 주고 렌탈 기간 내 건조통 1회 무상 A/S 교체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